

화순 이양농공단지 목재산업단지 들어선다

산림청 공모 사업 선정...3년 간 50억원 투자 국산 건축 구조용재 호남 생산거점 구축 기대

화순군 이양농공단지에 건축 구조용재를 생산하는 목재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화순군은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이 산림청 주관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양농공단지 안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된다

고 밝혔다.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은 목재산업체, 목재이용 연구소, 대학교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조합으로 1년 동안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한국목조건축 협동조합은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단지 6600㎡ 부지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0억 원(국비 25·도비 5·군비 5·자부담 15)을 투자해 단지를 조성한다. 지역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축용 집성재, CLT(교차적층목재), 내·외장재를 생산, 가격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산 건축 구조용재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 제품 생

산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갖춘 전망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과 지역 목재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연계방안, 원자재 안정적 공급계획 등을 적극 검토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목조건축 구조용 집성재 생산단지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완 주민공청회

오는 28일까지 최종 계획 완성 예정

곡성군이 11일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곡성군은 2016년에 지역 성장 전략과 목표를 담은 '2026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 코로나19 유행, 인구 감소 폭증, 삼급 기관의 정책 기조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대대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곡성군은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농업 및 임업, 인구정책, 지역개발, 관광 및 문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역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과제별 목표를 설정하고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용역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위해 발굴한 핵심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 회의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연구원, 11개 읍면 주민대표, 공무원 등 총 6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용역 추진 상황 안내, 부분별 중점과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용역에 따르면 곡성군은 '사람이 모이는 살맛나는 살터 곡성'을 중장기 미래비전으로 상정하고 있다. 핵심 목표로는 2030년까지 인구 3만 명을 회복 및 청년인구 비율 40% 달성, 1인당 GDP 3천 5백만 원,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거주 만족도 평균 7.0(10점 만점) 달성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를 위해 88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민 내용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과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곡성군은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고서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용역을 통해 발굴된 세부 사업들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이외에도 군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주민과의 대화 돌입...오는 28일까지

나주시는 2022년 시정 비전 및 방향 공유와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1개 읍·면·동씩 예정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하루 2개 읍·면·동을 순회한다.

14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15일 금천면·산포면, 16일 다도면·봉황면, 17일 세지면·영강동, 18일 이창동·영산동, 21일 왕곡면·성북동, 22일 금남동·노

매일 오전·오후 2곳

20개 읍·면·동 순회

주민대표 중심 최소화

안면, 23일 다시면·문평면, 24일 반남면·공산면, 25일 동강면·송월동, 28일 빛가람동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과의 대화는 주요업무계획 등 나주시의 올해 시정 운영 방향 설명과 읍·면·동별 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대표 중심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정부방직 및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연초 개최했으나 지난 9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대선 이후로 행사 일정이 미뤄졌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과 바람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국비확보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주영 전라남도 재정협력관 초청...국·도비 예산확보 10대전략 노하우 전달



구례군 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영 전라남도 재정협력관을 초청해 국비확보 직원역

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청 대회의

실 현장교육에는 국고보조사업 팀장 및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전 직원은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수강하였다.

'정부 예산 과정의 이해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교육에서는 국가재정 및 '22년 정부예산편성현황, 국비사업 요구 시 검토사항 등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 및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예산 편성 시 기재부 예산실 및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수행시기를 고려한 사전절차 이행, 효율적인 기재부 대응 방법을 강조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관련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와 '국비확보를 위한 10대전략'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였다.

군 관계자는 "오늘 강의가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등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열악한 군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신규농업인·귀농희망인 안정적인 농촌 정착 돕는다

영농기초기술교육 귀촌생활반 개강...매주 목요일 총 5회 걸쳐 진행



담양군은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영농기초기술교육(귀촌생활반)을 최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석자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독 실시 등 충분한 방역 조치를 병행했다.

교육은 지난 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촌 적응교육 및 텃밭작물관리부터 귀농창업설계와 창업자금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 적응부터 정착에 필요한 지식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신규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 | | | | | | |
|--------|----------|--------|---------|--------|--------|-------|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광판 |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남 | 포스코A&C | |